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1강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오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로 불린다.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세부적인 시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각을 먼저 보도록 하겠다.

명칭

출애굽기 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 있다. “출애굽”이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LXX - ἔξοδος ; VUL - Liber Exodi 이것을 중국어로 “出埃及記”(출애굽기)라고 불러왔다.

헬라어로 ἔξ는 “나가다”라는 뜻이며, ὁ δόξ는 “길”을 뜻한다. 따라서 “길을 떠나다, 출발하다”를 의미한다. ‘~에서 나오다’(ex)라는 것은 이러한 명칭은 ‘~로 들어가다’를 전제로 해석된다. ‘~로 들어가다’는 헬라어로 ‘αἰς’로 표현한다. 여기에 ὁ δόξ를 붙이면 ‘αἰς ὁδός’가 된다. 즉, ‘출애굽’은 ‘가나안’ 땅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성서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 성서를 중심으로 번역되었다. 히브리 성서 명칭은 헬라어 성서와 같을까? 히브리 성서는 두 번째 책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다).

구조

우리는 성서의 각 책을 개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출애굽기는 오경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경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아야 한다.

A	창세기	창조와 족장에게 약속
B	출애굽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C	레위기	시내산의 법
B'	민수기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A'	신명기	약속 성취와 땅에서 삶 선포

이처럼 오경은 족장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 산까지 과정을 담고 있다. 게다가 민수기는 시내 산에서 모압까지 여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민수기에 상응한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의 구조를 살펴보자.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올해에는 성경을 통독해보자’ 라고 새해에 결심한다. 2개월 정도가 지났다면, 아마도 오경의 후반을 읽거나 혹은 이제 막 오경을 지났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늘 겪는 것이지만,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는 이 본문들이 율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성서 본문들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시내 산”이라는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본문이 서술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19:1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 도착했고, 민수기 10:12에서 비로소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 19 - 민 9장까지는 시내 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19장부터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출애굽기 17장까지는 출애굽, (히_습)바다를 건넌, 만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출애굽기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 1-17	1장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2-4장	모세의 소명
	5-12장	출애굽
	13-15장	습 바다 건넌
	16-17장	광야 이야기
출 19-40	19장	시내산에 오르다.
	20장	십계명
	21-24장	언약법전
	25-31장	성막 제도
	32-34장	금송아지 사건
	35-40장	성막 건축

나침반 바이블
BIBLE

목적지

이미 위에서 출애굽의 상이한 명칭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러한 명칭은 출애굽의 목적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가나안 땅

오늘날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출애굽기’ 혹은 ‘Exodus’라는 명칭은 ‘Eisodus’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렇다면 ‘가나안 입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은 단연 ‘여호수아’이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여호수아’와도 내용적으로 연결된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요단강’ 도하는 출애굽기의 ‘갈대 바다’ 건너는 모습과 일치한다. 따라서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입성과 연결된다.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성서에서도 관찰된다.

이러한 본문들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목적은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3.2 광야에서

출애굽의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명칭은 교회에서는 조금 낯선 것일 수 있다. 그와 유사하게 ‘창세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태초에’ 이고, 민수기의 이름은 ‘광야에서’ 이다. 다른 성서 명칭과 히브리식 명칭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이야기하며,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러한 본문들에서 눈에 띄는 것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다/ 섬기다’ 이다. 이것에 따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는 목적은 ‘광야에서 야웨를 숭배하는 것’ 이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위의 본문들이 제시하는 출애굽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 목적지가 ‘광야’라는 것이 생소하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도착한 광야는 어디이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서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광야는 두 곳이다. 하나는 시내 광야이며, 다른 하나는 모압 광야이다. 둘 중에서 출애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광야는 시내 광야이다. 출애굽기 19:1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민수기 10:11-12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내 광야에서 오랜 기간을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경의 내용을 볼 때, 출애굽기 19장 - 레위기 - 민수기 10장까지가 바로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

성서는 이 기간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으로 기록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한다. ‘토라’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는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가리키지만, 본래 그것은 ‘가르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토라’와 직결된다.

토라와 하나님 섬김이 무관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끊임없이 ‘토라’와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토라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다. 토라는 일반적으로 ‘율법’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봉사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관찰된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2.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기록해 주셨다.